

나도 이 무대의 주인공 '부캐의 시대'

전주 문화공간 이룸, 12월 1~3일 시민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개최

전주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운정)이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시민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부캐의 시대 시즌3'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5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획 공연으로, 전문 예술 무대를 시민에게 과감히 개방해 생활예술의 폭을 넓히는 데 뜻을 두고 있다.

'부캐의 시대'는 '나도 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문화공간이룸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전문 예술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일상 속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자아(부캐)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감정과 삶을 돌아보고, 관객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며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올해 시즌3는 한층 깊어진 서사와 완성도 높은 무대로 돌아왔다. 예술가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던 이들, 직업과 가정을 지키며 취미로 예술을 놓지 않았던 시민들, 은퇴 후 새롭게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까지, 다양한 삶의 주인공들이 이룸의 무대에서 또 다른 '나'를 꺼내 보인다.

이는 접근성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큰 전문 공연장의 한계를 낮추고, 누구나 '한 번쯤 서보고 싶었던 무대'를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문화공간이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공연은 세 편의 뚜렷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12월 1일 'KA39 - CONTINUE'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지켜온 시민들이 모여 꾸미는 음악·퍼포먼스 공연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꾸준함과 서로의 연대를 담아낸다.

12월 2일 '고복금 - 추억여행'에서는 79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고복금 작가의 삶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평생을 한국예술문화명인 서승아 명인을 길러낸 어머니로 살아온 그의 삶은 회고와 감성의 장항이 되어 관객의 마음을 잔잔하게 두드린다.

12월 3일 '송지현 - CHOICE'는 무용수로 살아온 한 청년이 인생의 전환점마다 마주해야



부캐의 시대 시즌3 포스터

했던 '선택'의 순간을 무대화하며 예술가로서의 성장과 내면적 갈등을 이야기한다.

'부캐의 시대 시즌3'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이룸에서 열린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전북 도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이민호 기자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 정기전 개최

12월 2~7일 전주문화재단 예술인지원사업 일곱 번째 기획전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다음달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한국청미회) 제31회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단체와 청년 창작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폭넓은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선정된 단체와 작가에게는 전시실 무상 대관, 현수막·X배너·포스터·리플릿 제작, 언론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청미회전은 청각장애인 예술가들이 시각적 감각을 기반으로 확장해 온 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다. 한국 작가 29명과 일본 작가 6명 등 총 35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로 다른 감성과 표현 세계를 선보인다.

오프닝 행사는 12월 4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전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관람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어린이 오케스트라·합창공연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공연장에서 '2025 어린이 오케스트라 & 합창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학생은 도내 초등학교에서 선발된 어린이 오케스트라·합창단 80여 명으로,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전문 예술강사 및 지휘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합주·합창 지도를 받았다.

양인환 지휘자(오케스트라), 오영숙 지휘자(합창), 최미혜 반주자를 비롯해 도내 전문 연

주자들이 지도자로 참여해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도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악기 수업, 파트별 합주 지도, 앙상블 연습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Intermezzo sinfonico', 엔니오 모리코네의 'Gabriel's Oboe'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곡과 '가을 바람'(김규환), '별 보며 달 보며'(유병무) 등 클래식·영화음악·동요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3부 '강패와 경찰' (2)

박창수를 죽였다고요?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승낙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전히 어정쩡한 미정 상태 아닌가. 그런데 왜 형사들이 잡으려 왔을까? 이렇게 형사들이 직접 찾아와 신체를 확보한다는 건 현행법일 때나 가능한 일이다.

"강동식! 당신을 박창수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제 됐어!"

"뭐, 뭐라고요! 박창수를 죽였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동식은 엇그제 박창수를 만났다. 무장면도끼로 시목동 계곡에서 만났다. 그때 박창수는 멀쩡했다.

그런데 그가 죽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죽인 것일까.

박창수를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창수와 살인을 모의한 죄가 있어 동식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고창경찰서로 갔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장소다.

곧바로 밀폐된 조사실로 끌려갔다. 아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수환 형사다.

동식은 과거에 이 사람에게 무던히도 잡혀왔고 취조를 당했고 검찰에 송치되었던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최수환은 동식 같은 건달을 다루는데도 통했네. 건달들은 이자가 얼굴이 붉다고 해서 붉은여우란 별명을 붙여줬다. 붉은여우에게 걸리면 빠도 못 추린다는 말이 돌고 있었다.

어쨌든 오랜만이라고 해야 하나. 손이라도 잡고 악수라도 청해야 하나.

"강동식, 박창수 씨를 알고 있지?"

붉은여우는 수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모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다고 해야 하나. 선택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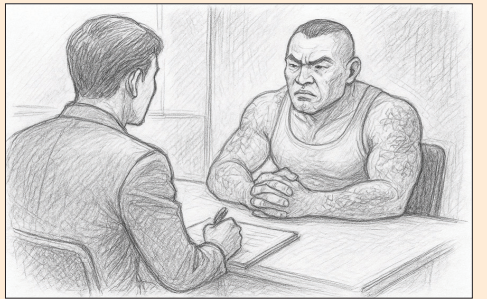
"잘 모르지만 전화통화를 한 일은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전화통화를 한 일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붉은여우는 상체를 동식 쪽으로 바투 당기며 압박해 왔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박창수 씨가 어떻게 어디에서 죽은 겁니까?"

붉은여우는 눈을 치켜뜨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잠시 동식을 노려봤다. 동식을 유력한 용의자로 찍어놓고 있는 게 분명해보였다.



"자네가 진범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다만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

바짝 잡아챌던 줄을 붉은여우는 느닷없이 헐겁게 풀어주고 있었다. 이거 뭐하는 거지? 벌써부터 줄다리기를 하지는 건가?

"자네 엇그제 저녁에 무장면 도끼로 시목동 계곡에 간 일이 있었지?"

이미 시시티브이로 동식의 움직임을 다 파악해놓았다는 거다.

"예, 갔었습니다. 박창수 씨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왜 만나자고 한 거지?"

붉은여우는 눈을 건물 꼭대기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 피뢰침처럼 동식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동식의 눈을 찌르고 있었다.

동식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미쳤나? 사실대로 말하면 살인을 모의한 건데.

"하도 만나자고 그러기에 그냥 만났어요. 만나서는 다짜고짜 누군가를 때려대라는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징역을 나온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고, 또…… 말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붉은여우는 피뢰침을 거두지 않고 관심법을 쓰겠다는 건지 동식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릴 때를 놓치지 않았다. 붉은여우는 동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을 것이다.

"그래? 음……, 우리가 압수 영장을 받은 건데, 자네 집을 좀 볼 수 있겠나?"

붉은여우는 말을 빙빙 돌리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동식을 놀리고 있었다. 은근히 가슴에서 탈보로를 필 때 커는 불타나 라이터 불이 확 켜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까?"

동식은 이마를 급격히 구겼다.

"어허……, 화내지 마. 화내면 몸에 해로우니까……"

축! 전주매일 창간

굴착공사 신고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www.eocs.or.kr
- 모바일 m.eocs.or.kr
- 전화 1644-000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새한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사용전
실내환기

가스불을 켜기 전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사용합니다.

사용중
점화확인

점화할 때에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 합니다.

사용후
밸브잠금

사용 후에는 연소기 점화스위치, 콕크를 모두 **잠가야** 합니다.

평상시
누출점검

호스와 연소기 등의 **이음매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 등으로 점검 합니다.

가스안전
수칙

더 편리한 요금 조회, 납부 이제 가스비는 가스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요금 확인

번거로운 지로 납부 대신
3초 간편 결제

불편한 검침원 방문 대신
비대면 자가검침

몇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방문서비스 예약